

# “미래 혁신보다 생존”…농업인들, 농정 안전망 강화 요구

KREI, 10대 농정 이슈 발표…농가소득 확대·경영안정 강화 등 꼽아  
정부 주요 농업 정책 스마트농업·재생에너지 확산 등 최하위권 차지

현장 농업인들은 올해 농업정책 방향성에 대해 ‘미래 혁신’보다는 ‘당장의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기후위기 따른 재해·질병 피해, 고환율로 인한 생산비 상승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보다는 경영 안정화가 더 절실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2026년 10대 농정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은 다방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년 대비 0.1%포인트(p) 낮춘 3.1%로 전망하고,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대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에선 인구 고령화로 농촌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매년 이상기후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450~1470원 수준을 오르내리는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농기자재 운영비 등 농가 생산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들은 이 같은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제시하며 당장 경영지원 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농업 전문가들은 AI 기반의 농업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정 이슈 중요도 조사에서 ‘가격보장 및 보험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7.62점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이어 ‘필수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강화(7.00점)’, ‘식량안보 강화(7.48점)’,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연금 시범추진 및 확대 논의(7.40점)’ 등 순이었다. 불안정한 농수산물 물가 변동성과 원자재비,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에 따라 소득 등 경영 안정과 관련된 항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주요 농업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농식품 산업 관련 AI학산 및 스마트농업(6.97점), 농업 지역 재생에너지 확산(6.93점)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전문가들과 도시민들은 올해 농정 중요 이슈 선택에서 현장 농업인과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세대교체(+0.96점), 기후위기 대응(+0.78점), 식량안보(+0.73점) 등 국가적 과제를 거시적인 관점의 중요 농업 정책으로 선택했고, 농자재 지원(-0.9점), 농어촌 기본소득(-0.82점) 등 농업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항목은 하위권에 자리했다.

도시민들 역시 농업인들과 달리 둘째복지(+0.96점), 물가안정(+0.32점), 유통효율(+0.46점) 등 소비자 관점의 항목을 중요하게 여겼다.

보고서는 “농업인 역시 AI를 활용한 농업 혁신 등 기술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농가의 소득 안정 등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심천심” 현장부터 살핀다

농협광주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북광주농협 관내 딸기 재배 농가와 로컬푸드판매장 등을 방문해 딸기 작황 출하 상황 등을 살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 1가마니 23만 940원…지난해 수확기 산지쌀값 역대 최고치 기록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가 8만 160원…전년 대비 26.2%↑

지난해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도 역대 최초로 8만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1가마니(80kg) 당 평균 22만 7816원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매달 5·15·25일 산지쌀값을 발표하고 있는데, 수확기 3개월간의 산지쌀값 평균 가격은 23만 9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확기 기준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산지쌀값은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지속 상승추세를 보여왔다.

앞서 지난 2024년 산지쌀값은 정부의 생산·소비량 예측 실패 등으로 1가마니 당 17만원 선에서 무너지는 등 하락을 거듭했지만, 지난해에는 2024년 산 쌀을 초과 생산량(5만 6000t)보다 4배 이상 많은 26만 6000t를 시장격리하면서 산지쌀값은 수확기에 접어드는 10월 5일(24만 7952원)까지

수직 상승했다.

연말이 지나가면서 수확기 평균 쌀값이 책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확정지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에서 가공임 비용을 제외한 뒤 도정수율(72%)을 곱한 뒤 배로 환산해 산출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40kg(벼·1등급) 기준 8만 160원으로 전년(6만 3510원) 대비 26.2% 상승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8만원 선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전년도 매입가격(6만 3510원)보다 26.2%(1만 6650원) 높은 가격이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에 들어간 비료값, 인건비, 농기계 산, 차량 유류값 등이 예년보다 크게 오른데다, 농협 등이 매입하는 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보다 낮다는 점에 아쉽다는 농민들이 많다.

농협 전남본부는 전남지역 생산량(68만 6000t)의 57.6% 수준인 39만 5000t를 공공비축미

로 매입할 계획으로, 농협전남본부의 매입가격은 평균 7만 1600원선(최저 7만원·최고 7만 4000원)이다.

전남도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농협 전북본부(6만 8000원~7만원), 경북(6만 8000원~7만원), 경남(6만 6000원~6만 9000원), 충북(6만 4000원~6만 8000원), 충남(6만 8000원~7만 1000원) 등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시장 격리 방침에다, 경지면적 감축, 깨시무늬병 발생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이 매입가격을 올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산지쌀값은 약보합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비축미 가격이 결정되면서 기준가격 역할을 하게 되면, 민간 시장에서의 벼 매입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607억원 투입…농식품부, 민생경제 회복 집중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 최우선…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첫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원 규모의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재해 피해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새해 첫날 집행된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개 사업 300억원 규모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444억원, 재해대책비(128억원), 농식품 바우처(21억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14억원) 등 사업 예산을 집행했다.

우선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사업 대상 산업단지 공모를 거쳐 올해부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총 740억원

으로 전년(381억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했고, 지원대상과 기간, 품목, 바우처 사용 매장 등도 모두 확대했다.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재해 발생에 대응한 농가 재해 대책비와 농작물 재해보험도 집행한다. 지난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냄새무늬병으로 인한 재난 지원금 잔여분도 지원을 이어간다. 총 305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까지 177억원을 집행했으며 올 1월 중 128억원을 추가 집행한다. 더불어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우 지난해에는 2월부터 기업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보험 기입을 장려할 예정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새해 첫날부터 집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올 한해도 농식품부는 자체적인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등 집행현황을 점검·독려해 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전남도, 1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담양 물구십리 마을’ 선정

국악·수확 체험 등 즐길거리 다채

담양 월산면 물구십리 마을이 전남도가 선정하는 ‘1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됐다.

물구십리 마을은 물이 구십리나 흘러간다는 의미로, 300여평 규모의 넓은 부지에 캠핑 공간과 축구 등 야외활동이 가능한 운동장을 갖춰 가족 및

동호회·단체 체험객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체험프로그램도 농촌의 일상을 경험하는 농촌 생활캠프·마을문화탐방을 비롯, 사물악기를 활용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겨울에는 빙기 따기 체험도 가능하다.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과 관방제림, 한국대나무박물관 등이 인접해 관광과 체험, 휴식이 결합

한 1박 2일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물구십리 마을은 농촌 정취를 느끼면서 국악 체험과 수확 체험까지 즐길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마을”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재 171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중이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완충구역 (㎢)
총면적(㎢)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면적보유지역(1,497.24㎢)의 약 86%, 국가연안면적(2,482.00㎢)의 약 52%를 차지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 기록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새들의 휴식처인 사래와 암반서식처

갯벌 위에 출수하는 무희, 사워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흉도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직체

모래-자갈 선흑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현장!

